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선발 심동섭 희망을 던졌다

5이닝 호투 불구 KIA, 두산에 2-5 패

지난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덕아웃에서는 KIA 타이거즈 좌완 심동섭과 조규제 코치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

10만원을 놓고 손가락까지 건 두 사람의 사연은 이랬다.

심동섭은 두산과의 13일 홈경기 선발 등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8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프로데뷔 후 첫 선발로 나섰던 심동섭의 두 번째 선발 등판.

8일 류현진과의 맞대결에서 심동섭은 4이닝을 1피안타 4볼넷 무실점으로 막았다. 기록상으로는 합격점을 받을 만한 피칭이었지만 선동열 감독의 마음까지 열지는 못했다.

선 감독은 "부상으로 겨울에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해서 구위가 좋지 못하다. 아직도 제 공을 던지 못하고 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선 감독이 심동섭을 선발로 투입한 이유는 잘 던져서가 아닌 잘 던지지 못해서였다. 불펜 필승조로 꼽아 두었던 심동섭이 극심한 부진을 보이자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선발 공백에 임시로 자리를 내준 것이다.

심동섭의 공 하나하나에 가장 애가 타는 이는 좌완 출신의 조규제 투수 코치. 지난달 말 다카하시 코치와 1·2군 자리를 바꾼 조 코치는 '심동섭 살리기'에 집중하느라 입술까지 부르텄다.

심동섭에게도 조 코치는 믿고 따르는 스승이다.

심동섭은 "정신이 바짝 들게 혼을 내고 지적을 해주신다. 집중도 하게 되고 긴장도 되고, 강하게 몰아 붙여주시는 게 고맙다"고 말했다.

부활을 위해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지난 한화전을 앞두고 '4이닝 1실점' 내기를 했다. 워낙 심동섭의 초반 성적이 안 좋았고, 첫 선발이었던 만큼 승자를 알 수 없는 내기였지만 먼저 제안을 했던 조 코치가 경기 전 일단 보류를 선언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두 번째 선발을 앞두고 12일 조 코치는 '5이닝 1실점'이라는 더 강한 조건을 걸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강판 되는 순간 10만원을 주는 것이다'며 손가락을 내걸었던 조 코치는 13일 경기 전 "제자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데…"라며 등판을 앞둔 투수보다 더 긴장된 모습이었다.

결과는 조규제 코치의 승리였다.

삼자범퇴로 1회를 시작한 심동섭은 3회 우익수 신종길의 실책성 플레이로 시작된 위기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내주면서 1실점을 기록했다. 이후 5회 이종욱에게 볼넷을 내준 심동섭은 유격수 실책으로 맞은 무사 2·3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았다.

이날 심동섭의 기록은 5이닝 6피안타 2볼넷 4탈삼진 3실점(2자책). 야수진들의 수비가 아쉽기는 했지만 2자책이 되면서 조 코치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심동섭의 앞으로의 보직은 유동적이다. 선 감독이 13일 "심동섭의 선발 등판은 오늘까지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양현종의 합류가 가정된 경우였다. 양현종은 13일 이천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2군 경기에서 5이닝 5피안타 2볼넷 4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완벽한 상황'에서 올리겠다는 선 감독의 마음에는 들지 못한 피칭이었다.

한편 KIA는 13일경기에서 두산에 2대5로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심동섭

이종범 26일 은퇴식

광주 LG전서 진행

'야구 천재' 이종범의 은퇴식이 5월26일 열린다.

KIA 타이거즈가 이종범의 은퇴식을 오는 26일 광주 LG전에 개최하기로 했다. 은퇴식 행사는 경기 전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비공개다.

최근 딸 가연 양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로 이사한 이종범은 "그동안 소홀했던 아버지 역할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틈 나는대로 야구도 보면서 후배들 응원하고 있다"며 "26일 팬들 앞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짜릿한 전반 허탈한 후반

광주 FC, 후반 4골 내줘 1-4 역전패

광주 FC가 1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K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1-4로 패배를 기록했다.

양팀 선수들이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되던 전반 36분 광주가 선취점의 기회를 잡았다.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복이가 상대 수비수 발에 걸려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김동섭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공을 밀어넣으며 1-0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수원의 공세가 시작됐다.

후반 1분 서정진의 패스를 받은 에벨톤이 수비수를 따돌리고 골을 넣으며 1-1을 만들었다. 후반 17분에는 수비수 유종현의 얼굴을 맞은 공이 광주 골문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됐다. 수원 박현범과 조용태까지 골 행진에 가세하면서 경기는 1-4, 광주의 패배로 끝이 났다.

8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한 광주는 3승5무4패(승점 14)로 11위로 내려 앉았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12일 상주시민구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김신영과 주성환의 골로 2-1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챙겼다. 3경기 만의 승리로 3승5무4패(승점 14)가 된 전남은 골득실차에서 앞서며 광주를 누르고 10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진흥고 왕중왕전 1회전 통과

화순고·효천고는 패배

동성고와 진흥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1회전을 통과했다.

동성고가 13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왕중왕전 겸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울산공고를 3-1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3회말 4번 곽병선의 우전안타에 이어 유격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1사 1·3루, 투수 폭투로 동성고가 선취점을 올렸다. 5회에도 곽병선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김태선의 안타와 이태훈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으면서 2-0이 됐다. 선발 이현재의 호투 속에 8회 김동범의 적시타로 1점을 더한 동성고는 3-1로 승리를 거뒀다.

선발 이현재는 8회초 1사에서 볼넷 3개를 연달아 허용하며 맞은 만루위기에서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줬지만 9이닝을 1피안타 13탈삼진 1실점으로 막고 완투승을 장식했다.

진흥고도 지난 12일 열린 대회 1회전에서 선발 하영민의 호투를 앞세워 대구 상원고를 3-1로 제압하고 16강을 확정지었다.

한편 주말리그 전라권 1·2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했던 화순고와 효천고는 실책에 발목이 잡혔다. 화순고는 배재고에 5-8로 역전패를 당했고, 효천고는 경북고에 7회 0-12 콜드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제7회 클럽챔피언대회 및 제8회 회원친선골프대회가 열린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회원들이 경기에 앞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함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 개장 8돌 회원의 날

클럽 챔피언에 김동섭씨 … 여성 메달리스트 임향숙씨

김동섭(47·자영업)회원이 호남의 대표적인 골프클럽인 함평다이너스티 CC의 제7대 클럽챔피언에 등극했다.

김씨는 '사계절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가 13일 개최한 제7회 클럽챔피언 선발대회에서 3라운드 스트로크 합계 225타(77-74-74)를 쳐 평균 75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준우승은 합계 233타(76-75-82)를 쳐서 평균 77.6타수를 기록한 정동혁(40·자영업) 회원에게 돌아갔다.

함평다이너스티CC 개장 8주년인 이날 치러진 클럽챔피언 선발대회는 제8회 회원 친선골프대회와 함께 치러졌다.

27홀 3개 코스에서 신페리오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회원친선 골프대회에서는 210명의 회원이 참석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임페리얼 코스에서는 71타를 기록한 남윤희(55·(주)토림건설 대표) 회원이, 마제스티 코스에서는 61.6타를 친 이상수(38·삼성메디컬 대표)회원이, 펠리스 코스에서는 68.6타를 기록한 이문(45·의사)회원이 우승했다.

또 정행용(68·의사) 회원은 최저타인 70타로 통합코스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여성 중에서는 임향숙(52·(주)동아대표) 회원이 69.6타를 쳐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참가 회원 전원에게 클럽 로고볼과 모자를 증정했으며, 대회를 마친 뒤 뷔페식과 생맥주를 곁들인 만찬을 열어 회원 간 친목을 다졌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마무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잔치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건강 100세 생활체육! 미래 100년 대전중심!'을 기치로 한 이번 대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대전에서 진행됐으며 16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명이 46개 정식종목과 8개 장애우종목, 2개 시범종목 등 총 56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광주시생활체육회는 야구, 배구, 자전거, 국무도, 태권도 등 29개 종목에 520여명이 참가했으며 태권도 태권체조부분 준우승, 배구 남자부 3위, 골프 남·여자부 3위를 기록했다. 여자 축구는 승부차기 끝에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무도 중등부에서도 은 1개와 동3개가 나왔으며 패러글라이딩에 출전했던 김석천 동호인은 연습조상사부에서 1위에 올랐다.

32개 정식종목과 5개 장애우 종목에 83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전남은 등산 가족팀 남자 청년부, 패러글라이딩 실버부, 씨름 여자부 60㎏ 이하, 육상 남자 30대 100m, 당구 남자 쓰리쿠션, 수영 남자부 접영 50·100m와 평영 50·100m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광주시 선수단은 태권도 태권체조부분 준우승, 배구 남자부 3위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발대식 후 기념촬영한 선수단.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